

광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때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동시에 광고산업 역시 글로벌 10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난 해 우리경제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이 더해져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는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서민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지만, 넓게는 시장 수요와 생산을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이처럼 광고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축임을 인식하고 모든 광고 종사자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입니다.

2013년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광고 유통을 위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우선 광고주와 매체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광고 시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매체사와의 간담회, KAA Awards 등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광고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광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광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광고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고, 매체별 영향력 및 광고효율 분석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음해성 보도나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올 한해가 광고산업과 우리 경제의 희망찬 내일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정병철

